

건설 기업규모별 안전분위기 인식 수준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Safety Climate Level of Construction Company depending on Business Scale in South Korea

하 선 근* 김 태 희** 나 영 주*** 손 기 영**** 손 승 현*****
Ha, Sungeun Kim, Taehui Na, Youngju Son, Kiyoung Son, Seunghyun

Abstract

Many researchers in South Korea have conducted regarding the safety climate and concluded that the safety climate effect on the safety performance. However, the survey tools that were used in domestic research were developed by individuals or designed by reconstituting, translating from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e safety climate as a low factor of organizational culture showed up in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business scale.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afety climate level of construction company depending on business scale in South Korea. first, the survey is conducted by NOSACQ-50 for construction workers. Second, it is analyzed how organizational culture affected the safety climate. Finally, the improvements are suggested on the level of safety climate. In the future,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eline for the effects of the safety climate on the safety performance in construction site based on business scale.

키 워 드 : NOSACQ-50, 안전분위기, 설문조사, 조직문화
keywords : NOSACQ-50, safety climate, survey, organizational culture

1. 서 론

건설업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 및 산하기관들은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으나, 경영자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비용을 손실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최근의 연구자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분위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분위기 설문도구인 NOSACQ-50(Nordic Occupational Safety Climate Questionnaire)을 활용하여 국내 건설 기업규모별 안전분위기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안전분위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안전분위기가 안전성과(안전사고 및 안전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고하였다¹⁾²⁾. 하지만, 현재까지의 안전분위기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1) 대부분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건설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2) 서로 다른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설문도구를 이용하였으므로 하나의 조건(현상)에 대해 일괄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안전분위기는 문화의 하위요소이므로 기업규모(근로자수)에 따라 조직문화가 다를 수 있다.

3.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2달간 진행되었으며, 국내 건설기업 중 대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총 200부, 중소기업은 6곳을 대상으로 총 60부씩 배포하였다. 대기업은 13개 업체에서 167부, 중소기업은 3개 업체에서 19부를 회신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지 대기업 7부, 중소기업 2부를 제외한 대기업 160부, 중소기업 17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유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seunghyun@khu.ac.kr)

종합 분석한 결과를 표 1.과 같이 요약하였다. Cronbach's α 를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0.6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안전분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test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라 안전분위기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기업규모별 안전분위기 수준 결과

Dimension	Average			t	p	cronbach's α
	Major Company(n=160)	Small and Medium Company(n=17)	Different Value			
1 Management safety priority and ability	3.00	3.37	0.37	-4.240	0.003	0.82
2 Management safety empowerment	2.95	3.31	0.36	-3.633	0.005	0.85
3 Management safety justice	2.95	3.24	0.29	-3.111	0.006	0.72
4 Workers' safety commitment	2.94	3.47	0.53	-6.031	0.000	0.79
5 Workers' safety priority and risk non-acceptance	2.88	3.29	0.41	-4.205	0.000	0.76
6 Peer safety communication learning, and trust in safety ability	2.92	3.36	0.44	-7.038	0.000	0.73
7 Worker's trust in efficacy of safety system	3.11	3.41	0.30	-4.682	0.000	0.64

4.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기업규모별 설문문항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요인 1)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작업일정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보다 생산성을 중시하고 있다. 요인 2)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작업자들을 일시적인 인력자원으로써 인식하고 있다. 요인 3)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 요인 4) 중소기업은 인력자원 공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서로의 안전 및 개인의 안전에 대해 주의하고 있다. 요인 5) 불합리한 권력구조로 인해 대기업 소속의 작업자들은 사전에 인식되는 위험을 감수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인 6) 인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업 근로자들은 사고가 날 뻔한 경험들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요인 7) 대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안전분위기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로자에게 안전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할 것이고 안전분위기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경영자들이 생산성보다 작업자의 안전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생존(경영)을 위해서 생산성을 중시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안전관리비를 공사 낙찰률에 관계없이 별도로 계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인식변화와 제도를 마련하여 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작업자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근로자가 사고가 당하게 된다면 경영진들은 해당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파악한 것으로 인지하고 부상당한 근로자들을 수용해야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NOSACQ-50을 활용하여 국내 건설기업 규모별 안전분위기 인식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중소기업(3.13~3.62)이 대기업(2.83~3.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건설 기업규모별 안전분위기가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NRF-2016R1A2B4009909)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NRF-2018R1C1B60004)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참 고 문 헌

1. 김기식 and 박영석, 안전분위기가 안전행동 및 사고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9~39, 2002
2. 안관영, 안전분위기와 안전성과의 관계 및 연령의 조절효과, 한국안전학회지 제20권 제4호, pp.122~129, 2005